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90周年標語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자
立て イエス キリストの光を放とう
(이사야60:1, 마태 5:16)



THE GOSPEL NEWS

全国教役者研修会 アメリカで開催

主題「ディアスポラ教会—同和と霊性を考えて」



5月30日、6月2日、KCCI宣教委員会主催の全国教役者研修会が、主題「ディアスポラ教会—同和と霊性を考えて」のもと、米国ロサンゼルスで開催された。参加者は教役者他53名であった。

研修会が米国で開催されたのは、2008年に創立100周年を迎えるにあたり、既に3年前に100周年を迎えた米州韓人教会の歴史の足跡を辿ると共に、世界宣教を志向する代表的な韓国移民教会の宣教活動から学ぶ中で、同じディアスポラ教会として在日大韓基督教会と米州韓人長老会との交わりと関係により深くすることであった。

5月30日、ロサンゼルス空港に到着した一行は、恩恵韓人教会に向かった。広大な敷地と巨大な教会堂をもつ恩恵教会は1982年、南カルフォルニア州オレンジ郡において韓国人移民家庭三世帯による聖書勉強から始まった。設立時から世界宣教のビジョンを抱き、年間予算の半分を宣教に当て、世界各国に宣教師を派遣し(現在131名)、世界中で最も世界宣教に貢献している教会の一つである。恩恵教会での開会礼拝では、李聖雨牧師によるメッセージ(出エジプト13・21)と恩恵教会の金光信元長老と韓基弘牧師の挨拶があった。

引き続き、トレンス第一長老教会に移動し、朴聖主牧師による挨拶を受けた。挨拶の中で朴牧師は自らが牧会者になった証しと移民教会における牧会の難しさを、牧会者がつづきつづきの力(霊力、実力、健康、感化力、指導力)について語った。その後、米州韓人長老会元総務の崔勝九牧師による主題講演があった。講演内容は、韓国人の米国移民の歴史と、米国移民の理由と移民社会の実態と問題についてであった。主題講演後には、米州長老会神学大学総長の徐廷運牧師に



外登法問題国際シンポジウム開催

『東アジアの和解と共生』主題に

6月20、22日、第11回外登法問題国際シンポジウムが北海道・夕張にて、「戦後60年、日韓関係の発展と共生」を主題に開催された。韓国基督教教会協議会(NCC)人権委員会、韓国教会在日同胞人権協議会、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全国キリスト教連協協議会(外キ協)、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NCCJ)在日外国人の人権委員会、在日韓人教会の代表者37名(うちKCCJ関係者9名)の参加があった。

初日は、まず、林炳澤氏(日本の戦後責任を清算するために行動する北海道の

広める有意義なものとなった。訪問したすべての教会は、大韓教会であったが、このような教会は「くわすか」で、多くの教会は規模的に在日大韓基督教教会の諸教会とあまり変わらない。参加者の感想の中には、いくつかの小規模の移民教会を訪ねることを望む意見も出たが、訪問した諸教会の宣教師や教役者の牧会に対する情熱的な姿に多くの挑戦を受けたという意見も多かった。

在米韓国移民教会はディアスポラ韓国教会として良いモデルであり、これからKCCJが在米韓国移民教会と太い繋がりを持ち、在日同胞宣教、日本宣教、世界宣教において良きパートナーシップ、宣教協力関係を発展させていくことを願う。(報告:楊尚眞)

会場の案内をえて、主に夕張炭鉱の跡地をまわる現場研修を行った。1939年から日本による朝鮮人強制連行が始まるが、その中で最も多くの人たちが連行されたのが北海道であり、その中心が当時炭鉱町だった夕張であった。

現場研修後には宿所である「ホテル・マウントレイスイ」(夕張市)に入り、開会礼拝をもった。開会礼拝では、朴寿吉総幹事が「和解と共生の道」(ルカ17・11-19)と題してのメッセージを行い、グローバル化の中で多様な国の人たちが共に暮らし、社会を構成する中で求められているのは、共に生きる姿勢であることなどを述べた。開会礼拝後には外キ協の秋葉正二事務局長より基調報告があり、これまでの国際シンポジウムの歩みとその到達点を確認した。

二日目は、古賀清敬牧師(北星学園大学講師)による聖書研究が始まった。「なぜ、外国人が暮らしやすい社会は、日本人にも暮らしやすいのか」(エレミヤ7・11-15)と題しての聖書研究で古賀牧師は、不正のしわざが社会的弱者に負わされている事実を人びとが見失う時、不正の問題が形だけ解決されたように見えても、実は社会の深いところまで腐敗は広がる一方であることをエレミヤは見ており、私たちの現在の社会においても同様のことがいえる」と指摘した。

その後、二つの主題講演を受けた。まず、香山洋人司祭(立教大学チャペル)による主題講演①「東アジア共同体」構想が政治家や知識人から提起されているが、この構想に不可欠なものとして日本・韓国・中国のナショナリズムの克服と朝鮮半島の安定化、そして日本のアジアにおける信頼回復のための歴史清算があることが語られた。そのほか、誰かの犠牲を前提としない「共に生きあひ合う」関係の構築を実現するための誠実さの必要性などが語られた。

引き続き行われた金景南牧師(韓国基督教社会問題研究院院長)による「韓日両国の新しい未来に向けて」韓日協定の改正を通して「韓日協定の改正を通して」と題しての主題講演②では、独島問題や小泉首相による靖国参拝問題によって韓国民は現在の韓日関係に疑問を示して、「その根源は歴史清算が前提とされなかった韓日協定にある」と考え、韓日関係が共生と平和を実現するために不当な韓日条約と諸協定

が破棄または改正され、日本政府が戦後責任をしっかりと担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などが述べられた。

午後からは、二つの発題を受けて、分団協議を行った。「日・韓・在日の歴史の共有」(金景南牧師)と「試みと課題」と題しての発題で井上薫氏(銘路短期大学助教授)は、強制連行犠牲者の遺骨調査および遺家族への遺骨返還などのかささぎの会の働きを報告した。また、金景南牧師は、「日・韓・在日教会の共同課題」と題した発題で、第10回までの国際シンポジウムで提起された課題を分類・整理し、これからの方向性への提言を行った。その後、全体協議を行い、分団協議の報告を受けた後、共同宣言の検討を行った。

最終日には、全体協議において共同宣言を採択した後、李明男牧師(韓国教会在日同胞人権宣教委員会委員長)による「義は国を高める」(箴言14・34)と題してのメッセージによる閉会礼拝をもってシンポジウムを終了した後、現場研修として札幌市アイヌ文化交流センター「札幌ヒリカコタン」を訪れ、アイヌ民族の文化について学んだ。

今回のシンポジウムは、日本が朝鮮半島を実質的に植民地化した「乙巳条約」から100年、日本の敗戦後、朝鮮半島の解放から60年、日韓条約締結から40年の歴史的節目の年にふさわしいものとなった。また、韓国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正義と平和委員会からの正式参加があったが、このことはこれからの取り組みの広がりにおいて大きな収穫であった。

(報告:RAIK)

在日大韓基督教会 訪美団 歡 迎 詩

우리는 오늘 愛國者들이요、福音의 使徒들인 그대들을 眞心으로 歡迎하노라。

170余 나라의 7百萬 海外同胞 中에서 特히 日帝 壓制下에 忍耐와 抵抗으로 피눈물 속에서 살아 온 그대들었기에 나는 그 슬프고 錯雜한 마음으로 歡迎하노라。

그대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유대인 捕虜들처럼 잃어버린 祖國을 向해 얼마나 痛哭하며 울었던 生活를 맛보았던가。

이제 光復된지 60年、福音의 蠟燭 들고 二世들의 靈魂을 구하려고 애쓰다 온 그대들은 福音의 常勝將軍들이어라。

아아! 우리들은 그대들을 참으로 사랑하노라。

우리들의 원수였던 그들은 패역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化石인양 단단하였으나 그대들의 이마는 金剛石인양 더욱 굳세어 能히 그 虐待와 苦痛을 이기고 살아왔으니 그 뜻과 그 精神 어찌 讚頌치 않으랴。

그대들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特別하신 하나님의 祝福으로 現代版 가나안 福地에 와서 基督教王國이기에 마음 놓고 宣敎하는 祝福받은 것 황송하여라。

이 나라엔 우리 同胞 250萬명이 살고 天使의 都市라 하는 이 곳 羅城市에는 大韓民國에 所屬된 都市인양 70萬同胞에 1千個가 넘는 韓人教会와 4千名の 同役者가 活動하는 舞台여라。

우리는 2003年에 宣敎 100周年을 祝賀했으나 그대들은 3年後에 日本에서 宣敎100周年을 맞이한다니 이 어찌 기쁜 慶事가 아니겠는가。

바라옵기는 우리들 海外同役者가 손에 손을 맞잡고 太平洋과 玄海灘 위에 七色 빛의 무지개 징검다리를 쌓아 올려 世界가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의 福音 血盟을 世界 앞에 높이 세우는 광과를 오늘 마음껏 터트려 봄이 우리들의 榮光스러운 所願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우리들의 비전 永遠하여라!

2005年5月30日

在日大韓基督教会 訪問團 歡迎會 席上 朗誦 祝詩

月光 朴永昌牧師 (美州光復會名譽會長)

說 教



《青年主日》

創造者를 記憶하는 教會

전도서 11:9-12:1
趙 永 哲 (大阪北部教會牧師)



에밀슨이라는 學者는 “오늘 그 사람은 바로 하루 24時間을 살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日常生活 속에서 ‘무엇을 생 각하며 사는가?’ 라는 質 問과 答은 대단히 重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 각이 그 一生을 左右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 었을 때의 생 각은 그 사람 의 一生을 左右하는 열쇠 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서 좋은 생 각, 健全한 생 각, 積極적이고 肯定的인 생 각 무엇보다도 重要하 나 具體적으로 記憶하 며 創造者를 記憶하는 信仰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

한 具體의 創造者를 記憶하라”고 말씀 하는 聖經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黃金과 같은 時間과 同 等한 時間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젊 었을 때에는 여러 試練과 誘

惑, 人間의 本能과 快樂을 追求하게 되는 傾向이 있 고, 한번 거기에 빠지다 보 면 時間이 어떻게 지나 는 지조차 모르게 虛度歲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의 精力과 體力을 믿고 人間 의 慾望을 認識하지 못 하게 됩니다. 이것이 普通 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은 青年의 時期에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 언젠가 반 省할 때를 아끼지 말고 知 識을 쌓지 않으면 안 된 다. 이것이 바로 創造

者 하나님을 記憶하는 信 仰의 眞인 것입니다. 2. 두 번째로 하나님 나 라를 바라보며 眞正한 信 仰을 準備하는 信仰의 姿勢입니 다. 福音書를 보면 세례 요한 이나 예수님 자신이 第一 먼저 傳한 말씀은 “悔改하 라”입니다. “가라”라는 말은 “改 正”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福音書와 예수님이 傳하신 말씀의 核心이 역시 하 나 하나님(天國)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를 위해 準備하신 하 나 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 해 우리는 늘 準備하는 信 仰生活를 해야 합니다. 주 님은 罪人된 우리에게 悔 改할 機會를 주셨고(제2

2) 하나님의 나라에 들 어갈 수 있는 恩惠를 베풀 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러한 機會를 놓치지 말고 25章의 슬기로운 다윗 처

로 3. 마지막으로 하나님 을 敬愛하고 그 命을 지 키는 것입니다. 知惠의 王 솔로몬이 記 録한 傳道書의 主題는 한 마디로 “傳道者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 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다”(傳1:2, 12:8)였 습니다. 聖書의 歷史와 世 界史를 볼 때 솔로몬처럼 知惠로운 왕이 없었다고 하 는데 그런 솔로몬 왕이 傳 道書의 마지막 部分에서 내 린 結論은 “인간의 結局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敬愛하 고 그 命을 지키라”이다. 이것이 사람의 本分이니 라”(傳12:13)였습니다. 여 기서 사람의 本分은 먼 저 하나님을 敬愛함으로 나 타나는 것입니다. 잠9:10에 “여호와를 敬愛하는 것이 知惠의 根本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明哲 이니라.”고 했습니다. 여 기서 敬愛라고 하는 말에 는 尊敬과 두려움의 意味 가 있습니다. 오늘날 家庭 이나 社會에서 問題가 되 는 것은 두려움과 尊敬의 缺如입니다. 父母, 先生 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고, 그로 인해 現在 家庭

者 하나님을 記憶하는 信 仰의 眞인입니다. 2. 두 번째로 하나님 나 라를 바라보며 眞正한 信 仰을 準備하는 信仰의 姿勢입니 다. 福音書를 보면 세례 요한 이나 예수님 자신이 第一 먼저 傳한 말씀은 “悔改하 라”입니다. “가라”라는 말은 “改 正”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福音書와 예수님이 傳하신 말씀의 核心이 역시 하 나 하나님(天國)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를 위해 準備하신 하 나 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 해 우리는 늘 準備하는 信 仰生活를 해야 합니다. 주 님은 罪人된 우리에게 悔 改할 機會를 주셨고(제2

장터
韓國食品・書籍・CD・ビデオ
(株) 韓國廣場
新宿店：東京都新宿区大久保1-17-7
TEL (03) 3232-5400
FAX (03) 3200-2949
代表取締役 金根熙

不動産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③第5426番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光洙
(名古屋教会 長老)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川並町2番21号
(名古屋市中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太栄ビル)
電話 052(682)1177(代)
自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株式会社 ニューキング 愛
有限会社 三
取締役社長 李鍾善
(名古屋教会 長老)
ニューキング 四日市市野田1丁目965-1
三 愛 TEL (0593) 31-4771(代)
岡崎市大和町字荒田14-1
TEL (0564) 31-8893(代)

新会長に姜順明勸士を選出

會計監査…金住玉(名古屋)
朴成子(浜松)
報告…金恩漢

(電話0792-54-1122)

その後、各個教会女性会の説明があった後、修養会（9月27・28日、講師・藤井圭子先生）など2005年度の活動方針の内容確認と討議が行われた。

その後、各個教会女性会

らさまざまな働きを行ったことを確認し、お互いに励みとなった。会議は主の祈りをもって閉会した。

（報告・崔美恵子）

大韓基督教會
に基づいている
説となってい
てお使いくだ
韓国長老教出
6問合せ先：

www.korealand.jp

E-mail: schererstat@page.ee.jp

代表取締役社長 白 一 善

本 社 東京都墨田区江東橋4-6-4 TEL (03) 3633-7477代
 済州C・C 韓国済州市寧坪洞2238-2 TEL (064) 702-0451代
 ソウル事務所 韓国ソウル特別市鍾路区内需洞167 TEL (02) 739-3327代

○78の個教会・伝道所の歩み
○5地方会の歴史
○青年会・女性会の歴史
○宣教90年の歴史年表
(口絵7ページ／本文438ページ)
定価●4500円(送料含む)
◆お申し込みは、各教会に。